늘 그랬듯… 장사익은 삶을 노래한다

'역'(驛) 주제로 공연
24일 광주문예회관

"잎사귀 하나가 가지를 놓는다. 한세상 그냥 버티다 보면 덩달아 뿌리내려 나무 될 줄 알았다. 기적이 운다. 꿈 속까지 따라와 서성댄다. 세상은 모두 다 역(驛) 뿐이다" (김승기 시'역'(驛) 중)

'꽃구경'이란 타이틀로 국내는 물론 미국·일본 등 해외까지 감동을 선사했던 소리꾼 장사익(60·사진)이 새로운 주제로 광주를 찾는다. 2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번 광주공연에서 장사익은 늘 그랬듯이 우리들 삶을 반추하는 노래들로 스쳐 지나가는 '역'(驛)을 통해 반복되는 삶의 일상을 노래한다.

기형도 시인의 '엄마생각', '찔레꽃' '허허바다' 등 귀에 익숙한 곡과 '이게 아닌데' '귀천' '여행' '역'등 6집 앨범 수록곡과 신곡들이 발표된다.

공연에는 정재열(기타), 최선배(트럼펫), 이원술(베이스), 고석진(모듬북), 최장현(피아노), 벤 볼(드럼), 하고운(해금) 등의 연주자와 아카펠라그룹 '솔리스츠', 동성 틴 OB 남성합창단이 함께한다. 티켓 가격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3만원. 문의 062-528-78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창극단 간판소리꾼 왕기식·박애리

25일 광주무대에 선다

광주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심인택〉

〈박애리〉

국립창극단 간판스타들이 광주 무대에 선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단장 심인택)은 제64회 정기연주회 '빛빛빛 빛은 아름다워라'를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린다.

심단장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의 첫 곡은 동아콩쿠르 금상 수상자인 신윤수에게 작곡 위촉한 '희경루'며 국악관현악단 대금 수석 주자 송선명씨가 '원장현류 대금산조'를 협연한다.

관심을 끄는 공연은 국립창극단의 왕기식·박애리 명창의 무대다.

왕씨는 전봉준의 사상을 조명한 음악극 '천명' 중 '칼노래'를 선보인다. 국립창극단의 작품에서 춘향, 심청, 줄리엣 등 주역을 도맡고, 특히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가 '오나라'를 부른 박씨는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을 부른다.

피날레 곡은 아리랑과 애국가 선율을 모티브로 한 이경섭의 '코리아 아리랑'(위촉곡)이다.

티켓 가격 1만원, 5000원. 문의 062-510-93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도나 역 최정원 인터뷰

MAMMA MIA!

뮤지컬 '맘마미아'의 주인공 도나역을 맡은 최정원(41)은 1987년 롯데월드 예술극장 단원으로 뮤지컬 인생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데뷔는 1989년. 맡은 역은 '아가씨와 건달들'의 '6번 아가씨'였다. 이후 그녀는 '한국뮤지컬 대상'에서 신인상, 인기스타상, 여우조연상, 여우주연상 등 이른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며 자타공인 한국 뮤지컬계의 '디바'로 우뚝섰다.

전화 인터뷰를 하던 날 그녀는 청룡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여, 하루 다섯편씩 영화를 보는 강행군중이었지만 시원시원하고, 유쾌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20년 넘게 무대에 서온 그녀지만, '맘마미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목소리에서는 여전히 흥분이 느껴졌다. 광주공연은 12월 3~5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내 자신이 얼마나 멋진가를 느끼게 한 작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 됐으면"

-상 받는 거는 전문가가 다 됐을 것 같은데, 최근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두번째 여우주연상을 받고 펑펑 우는 걸 보고 좀 놀랬다.

▲이미 오래 전에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던 지라 상에 대한 미련은 별로 없었다. 늘 받아왔으니 이제 새로운 배우들이 받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번 수상작인 '키스 미 케이트'는 작품 분석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었다. 관객 반응은 좋았지만 참 어렵게 했던 작품이라 감회가 달랐나 보다. 최근에는 상복이 없어 오랜만에 수상하기도 했고. 특히 후배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치니까 그냥 눈물이 마구 솟구치더라.

-'맘마미아'에만 400회 가까이 출연했다. 당신에게 이 작품은 어떤 의미인가.

▲38살 때 이 배역을 만났는데 극 중 도나 나이가 40세다. 이 작품을 하면서 내 나이를 인정하게 됐고, 그게 얼마나 멋진가를 느꼈다. '댄싱 퀸' 가사 중에 '기억해 넌 정말 최고의 댄싱퀸'이라는 부분을 정말 좋아한다. 공연장 문을 열고 나갈 때 관객들 모두 도나와 친구들 처럼 '난 특별한 존재야', '난 행복해'하는 마음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알게 되길 바란다. 인생은 정말 멋진 거다.

-관객들은 도나가 'The winner takes it all'을 부를 때 열광한다. 객석에 있으면 카타르시가 느껴진다. 역시 최정원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내가 '맘마미아'에서 부르는 노래가 15곡이다. 이 노래만 400번 가까이 불렀는데 단 한차례도 울지 않을 때가 없다. 항상 목이 메인 채로 노래를 부른다.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는 거지. 동료들이 그리 울면서 어떻게 노래하냐고들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증, 딸 아이를 혼자 키우며 느꼈던 힘들었던 일 등 20년 세월 속에서 인생을 보는 거다. 사실, 음악회 같은 데서 부를 때는 훨씬 파워풀하게 부른다. 극 속에서 감정이 실어 부른 노래가 훨씬 감동으로 다가가는 것 같다.

-딸아이 결혼식 전날 장면에서는 객석에서 눈물을 보이는 사람도 많다.

▲우리 딸이 이제 12살이다. 밤에는 공연을 해야 하니 저녁 시간을 함께하고 재워주지는 못했지만 아침마다 꼭 밥을 같이 먹고 머리를 빗겨준다. 딸 아이가 '맘마미아'를 보고 펑펑 울면서 그러더라. "머리 만져주는 장면 노래할 때 내 머리 빗겨주는 것 생각하면서 불렀지"라고. 내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역시 내 손을 떠나겠지하며 자연스레 감정이입이 되는 거 같다. 모든 엄마들은 다 느낄 거다 이런 감정.

-이번에 함께 무대에 서는 남경주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롯데월드 입사 동기니 20년 넘게 인연을 맺어와 가족 같다. 15편을 같이 했다. 호흡이 잘 맞아 '맘마미아'에서도 편안하게 연기하고 있다. 뮤지컬 초창기에는 키스 장면에서 '흉내'만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가 '그리스' 공연을 할 때 너무 가식적인 것 같다며 '진짜' 키스를 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남편도 뮤지컬 관련일을 하고 있다. 함께 작업할 가능성은 있나.

▲이문세 노래를 만들었던 이영훈씨 곡으로 제작하는 '광화문 연가' 프로듀서를 맡았더라. 서로 서로 조언을 해주는 편이지만 내가 신경 쓰는 걸 걱정하니까 자신의 일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내가 외조를 잘 받는 편이다(웃음) 나도 보도 되기 며칠 전에 알았다. 창작뮤지컬 작업은 어려운데 잘 하리라 믿는다. 스케줄이 꽉 차 있어 함께 하지는 못한다.

-어떤 배우가 되고 싶나.

▲고등학교 때 윤복희씨의 '빠담빠담빠담'을 봤다. '사랑의 찬가' 중 '하늘이 무너져' 하는 첫부분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 영혼을 가진 배우가 부르는 영혼이 담긴 노래는 감동을 준다. 고맙게도 내 블로그에 그때의 나처럼 내 노래로 위로받았고 힘을 얻었다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내 무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다. 문의 062-220-05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제작자 박명성이 본 최정원

"연기 본질 제대로 알고 있는 배우"

'도나' 역에 관한 한 세계 최고다. 172개 도시에서 '맘마미아'를 공연하던 2008년 그룹 아바가 배역별로 최고 배우를 초청해 스웨덴에서 공연할 때 최정원이 바로 주인공 도나역을 맡았었다.

제작자로서 가장 좋아하는 배우고 무엇보다 신뢰가 가는 배우다. 연기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연극과 뮤지컬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는 것도 듬직하다.

올해 처음 도나역을 최정원 단독 캐스팅으로 진행중이다. 지난 5월부터 모든 공연을 혼자 뛰고 있고, 내년 서울 공연 때도 6개월간 원톱으로 공연한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배우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거다.

근성, 실력, 노력 모든 게 탁월하기 때문에 20년 넘게 한국 최고 뮤지컬 스타로 군림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신시컴퍼니 대표〉